



서양미술가
임상희

예술인명		
소 개	<p>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보통의 집, 풍경을 작품으로 담아내는 임상희 작가입니다.</p> <p>작품에 있어서 선택한 풍경은 사회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유의 공간으로 까지 확장된 상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풍경속에 사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일상의 이야기들을 재치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p>	
주 교 이 요 육 력	2013.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2011.02	세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학 학사 졸업
개인 전	2020.09	<9월의 크리스마스>, 인영갤러리, 서울
	2020.06	<眞 景 진짜 풍경>, 국회아트갤러리, 서울 국회의사당
	2019.05	<좀 쉬영 갑서예>, 갤러리 두, 서울
	2018.11	시민투표 선정 작가전 <살며시>,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재단
단체 전	2019.11	<초록과 황금의 나라>,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9.11	<소확행>,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제주도
	2018.10	<CHIYODA3331>, chiyoda3331레지던시, 도쿄 일본
	2018.03	<한일크리에이터 교류 전시>, 인영갤러리, 서울
소 장	2016.11	<화이트세일>, 꽃누리갤러리, 경기 부평
	2020.00	인영미술관, 서울
	2019.00	휴먼컨설팅그룹, 서울
	2019.00	탐앤탐스, 서울
	2019.00	개인소장 다수

프로젝트명 : <REAL VIEW>

아티스트 스테이먼트

본인의 작품은 내가 성장한 지역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출발한다. 1970년대 이후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많은 발전을 이어왔다. 정비되어진 땅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점점 살기 좋아졌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변두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이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은 하늘과 맞닿아있는 산동네라는 의미에서 달동네라고 불리게 된다. 산업화, 도시화의 그늘에서 소외된 이들 계층은 달동네라는 공간 속에서 한정된 삶을 지속해 가고 있다. 본인은 그러한 달동네 속 지역 환경안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며 회화로 표현하고자 한다.

현장답사를 통한 사진촬영과 수집, 컴퓨터 작업을 이용한 포토 꿀라주 기법의 드로잉 과정을 거쳐 캔버스에 회화로 제작된다. 작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되어 변두리로 밀려난 비루하고 저속하며, 거칠고 평범한 것들을 통한 삶의 환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이는 서민의 삶, 현장적인 삶, 사회문제의 비판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작품에 있어서 선택한 풍경의 개념은 사회속의 달동네 환경 뿐 만 아니라 사유의 공간으로 까지 확장한 상상된 공간이기도 하다. 풍경 속에 사물들을 배치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현시대에 오롯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그 중 갖가지 동물들을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대체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등장하는 각 작품 속 사물들은 세밀하고 정밀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사물의 등장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부각시키기도 하며, 실제처럼 표현한 기법은 풍경을 표현하는 채색 기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면구성에 있어 시각적 포인트를 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도시화 되는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달동네에 대한 아쉬움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서민적인 삶에 애정과 동질감을 느끼며 작품화하였고, 획일화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마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수평적 관계로 연결되는, 소외되지 않고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히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한다.

이러한 산물적 작업의 시리즈를 진경(眞景)이라 칭한다. 진경은 현재 무차별적으로 개발되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회화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과 추구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초원에서>, acrylic on canvas, 50x72.7cm, 2020

주요전시 : <9월의 크리스마스>



전시일정

2020. 09. 23 ~ 2020.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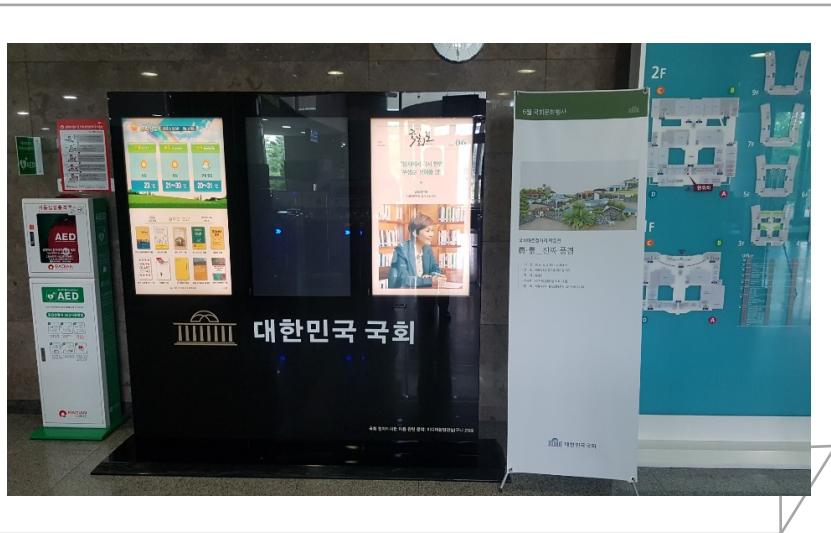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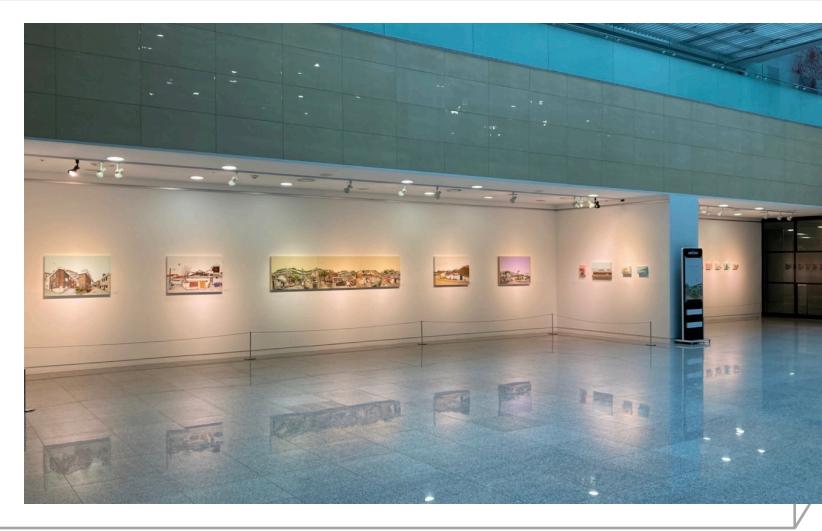
전시장소

인영갤러리(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23-4 3층)

전시소개

이번 전시의 배경은 군산 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려진 찰나의 과정을
담아내었습니다.

주요전시 : <眞 景 진짜 풍경>



주요전시 : <眞 景 진짜 풍경>

전시 서문

달동네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로 형성된 도시빈민층의 밀집지역이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집들이 빼곡히 자리한 달동네는 도태된 자들의 표상이자, 외면할 수 없는 도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작가는 계속해서 진화해온 도시 속 오롯이 존재해온 달동네 풍경을 따듯한 시선으로 작품에 담고 있다.

이제 이전을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하지만, 소외된 공간이었던 달동네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회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과연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주요전시 : <쉐어하우스>

언론보도 스크랩(2018.07.02, CNB저널)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CNB JOURNAL. At the top left is the logo '문화—경제' (Culture—Economy) with 'BY CNB JOURNAL' below it. To the right is a search bar icon. Below the logo are navigation links: '홈' (Home), '경제' (Economy), '칼럼' (Column), and '문화-미술' (Culture-Art). The main headline reads '점차 사라져가는 공간 속 반려동물의 의미는?' (The meaning of pets in spaces that are gradually disappearing). Below the headline is a sub-headline: '갤러리토스트, 임상희 작가 개인전 '쉐어 하우스' 열어' (Gallery Test, Im Sang-hee artist's solo exhibition 'Share House' opens). A timestamp '김금영 기자 2018.07.02 10:21:17' is at the bottom left. To the right are zoom controls ('가+' and '가-'). Below the text are three social media sharing icons: Facebook, Twitter, and KakaoTalk. A painting by Im Sang-hee titled '다함께 차차차' (Together Slowly) is shown, featuring a narrow alleyway with buildings and potted plants. A small 'TOP' icon is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image. Below the painting is its caption: '임상희, '다함께 차차차''. 캔버스에 아크릴릭, 65.1 x 45.5cm. 2018.' At the bottom left of the article text is a paragraph about the exhibition.

갤러리토스트는 7월 6~25일 임상희 작가의 개인전 '쉐어 하우스(Share House)'를 연다. 이번 전시는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친근한 반려동물과 함께 그려내며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진경(眞景)을 보여준다.

점차 사라져가는 공간 속 반려동물의 의미는?

갤러리토스트는 7월 6~25일 임상희 작가의 개인전 '쉐어 하우스(Share House)'를 연다. 이번 전시는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친근한 반려동물과 함께 그려내며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진경(眞景)을 보여준다.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도시의 양면적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거 공간의 모습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은 달동네를 형성하고 이마저도 점차 사라져가는 사회.

이 가운데 작가는 소외된 계층의 삶의 모습을 담으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서민의 삶에 대한 애정과 동질감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래서 화면 속 등장하는 공간들은 연뜻 정겹고 따뜻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더 이상 쉽게 마주할 수 없는 곳으로서 사회 변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이 담겼다.